

2010 지역경제 재도약 키워드

해언제나 희망을 가져라

# 포기않는 열정이 '재기의 씨앗'

신용 회복위한 성공 5계명

-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라
- 재기 의지를 다져라
- 신용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목포에서 조그만 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윤일재(가명·52)씨는 경인년 새해를 부른 희망으로 맞았다. 1998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 신용카드와 통장이 지급 정지된 후 12년만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윤씨가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정상인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인 큰 힘이 됐다. 윤씨는 회사 운영난으로 은행 대출금 1천500만원에 연체자지만 900만원에 달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절반과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재기에 성공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포목업을 하는 이상철(가명·48)씨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실패 위기에서 극적으로 신용을 회복해 새해를 맞게

됐다. 이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로 선정돼 6천500만원의 빚 가운데 2천만원을 탕감받아 26개월동안 미납없이 빚을 갚아왔지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은 물론 상가 임대료도 못내 개인워크아웃 취소 위기에 놓였다. 개인워크아웃이 취소되면 신청 이전보다 훨씬 강한 추심(빚 상환)을 받게 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이씨는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성실한 변제 노력 등을 인정받아 88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아 신용회복자로 다시 일어섰다.

이들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새해를 맞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재기를 다짐했다.

또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 가족 등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빚을 갚기 위해 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실업자들. 올해는 '희망'이라는 씨앗을 틔워 취업에 성공하고 신용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지역민들이 많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단한 노력을 한 점도 정상인으로 되돌아 오는데 도움이 됐다. 지원을 받은 후에는 신용관리에 힘을 쏟았다.

윤씨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하루 12시간 이상 직접 퀵서비스 배달에 나서느라 등 빚을 갚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자 형제들도 조금씩 힘을 보태 남은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줬다.

경제위기로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1만1천997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2천962명이 채무 재조정에 성공했다.

이들 가운데 981명에게는 총 28억7천430만원의 소액대출이 이뤄져 희망의 씨앗이 됐다. 채무 조정과 대출금은 전년 대비 20%와 109%나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고통이 컸다는 얘기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김기성지부장은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었다"며 "취업난과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신용회복 신청자가 30~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SUV' 전성시대 열릴까

소비심리 회복 신타페·쏘렌토R 등 판매 호조  
기아차 광주공장 '스포티지' 후속모델 3월 출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Sports Utility Vehicle) '전성시대'가 열릴까.

지난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소비 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시기에 기아차 광주공장 등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 출시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후차 세제 혜택이 종료된데다, 경유값 인상 움직임과 자동차세 인상 등이 맞물려 SUV 인기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기아차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SUV를 총 22만4천623대 판매, 전년도의 16만8천520대에 비해 33.3%나 더 많이 팔았다.

같은 기간 승용차는 총 89만5천415대가 팔려 전년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대적인 판매량은 다른 차종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판매 증가율에 있어서는 SUV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다.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에 SUV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8% 감소하고, 승용차 판매량은 5.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가격이 비싼 SUV의 경우 판매 추이는 경기에 비례해 변동하는 흐름을 보여왔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 혜택과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SUV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장을 주도한 것은 SUV 신차. 지난해 4월 새롭게 출시한 신타페R은 총 4만212대가 팔려 전년 대비 55.2%나 늘었다. 현대차의 SUV 모델 중 베스트셀러인 신타페는 지난해 총 5만8천324대가 팔려 전년 대비 34.7% 늘었고, 기아차 스포티지도 지난해 2만7천874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에 따라 올해 3월 스포티지 후속모델(프로젝트명 SL)을 출시하고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은 스포



<쏘렌토R>



<투싼IX>



<스포티지>

티지 후속 모델 출시를 계기로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추고 글로벌 자동차 공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스포티지 및 쏘울이 터트린 '대박' 인기를 스포티지 후속 모델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아차 광주공장측 복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80% 돌파

### 1999년 합병후 최대치

현대·기아차의 연간 내수 시장 점유율이 양사가 통합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9년 한 해 국내에서 70만2천672대를 팔아 시장점유율이 50.7%에 달했으며, 기아차는 41만2천752대를 판매해 29.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판매대수를 합치면 111

만5천424대로 내수 시장점유율은 80.5%에 달한다.

현대·기아차는 1999년 합병한 이후 통합 시장점유율이 2000년 73.7%, 2002년 73.8%, 2004년 73.3%, 2006년 73.2%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76.9%로 당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현대차의 점유율은 2007년에 51.3%로 가장 높았으나, 기아차는 합병 후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올 들어 2월 이후 월간 점유율이 4개월 연속 30%를 넘어서고 1-5월 누적 점유율이 30.8%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하반기 점유율이 하락하며 사상 첫 30% 돌파에는 실패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쟁력 있는 신차들을 대거 출시했으며, 한국형 어시어런스 프로그램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고 쌍용차 사태로 인한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우면서 전체적인 내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송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www.gib.com



퍼시스 소용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퍼시스 소용이